

근세전기 ‘そなた’와 그 주변어에 관한 고찰

민 승 희*

(e-mail : shmin@jwu.ac.kr)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5. ‘そなた’와 ‘わごりよ’의 비교분석 |
| 2. 선행연구 | 6. ‘そなた’와 ‘そち’의 비교분석 |
| 3. 연구방법 | 7. ‘そなた’와 그 주변어에 대한 종합적 비교 |
| 4. ‘そなた’와 ‘こなた’의 비교분석 | 8. 나오기 |

키워드 : 対称代名詞(Second personal pronouns), そなた(Sonata), こなた(Knata), わごりよ(Wgoryo), そち(Soti)

1. 들어가기

일본어의 인칭대명사는 화자와 청자의 상하관계, 연령, 성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일본어의 인칭대명사는 역사적으로 그 어휘 수가 많으며, 현재에도 타 언어에 비해 인칭대명사 사용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인칭대명사에 관한 통시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행하였으며, 그 연속선상에서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근세 전기의 ‘そなた’의 용법을 좀 더 깊이 분석하는 데에 있다. ‘そなた’는 근세전기¹⁾를 대표하는 대칭대명사로, 근세어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필수불가결한 연구대상이기 때문에 ‘そなた’와 유사 대명사의 비교분석은 근세인칭대명사 연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 중원대학교, 교수, 일본어학

1) 시대구분은 근세를 徳川家康가 江戸에 幕府를 연 때부터 明治維新까지로 하고, 宝曆를 경계로 하여 근세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정치사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민승희(2008) 近世前期の自称代名詞 ‘わたくし’, ‘わたし’, ‘わし’についての一考察 『日本文化研究』 25 동아시아일본학회 p.52.)

연구이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본 논문에서는 근세 전기의 대칭대명사²⁾ ‘そなた’를 고찰함에 있어서, ‘そなた’와 용법상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타 대칭대명사와의 비교를 통해 ‘そなた’의 특징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특히 ‘そなた’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そなた’는 淨瑠璃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대칭대명사이다. 이러한 높은 사용빈도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근세 전기를 대표하는 인칭대명사 중 하나이기에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명사이다.

둘째, 근세 전기에 ‘そなた’와 용법상 유사성을 띄는 대칭대명사인 ‘こなた’, ‘わごりよ’, ‘そち’³⁾등이 존재하여 유사 대칭대명사의 공통점 및 상이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そなた’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 작업이다.

이러한 ‘そなた’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연구 의의를 지닌다.

첫째, ‘そなた’의 용법에 대한 명확한 결과도출은 근세 인칭대명사 체계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기에 연구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일본어의 인칭대명사는 타 언어에 비해 다양하고 그 어휘수가 많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근세 전기에 사용된 대칭대명사 어휘 수가 약 10개 이상⁴⁾으로 근세 대칭대명사의 다양성의 이유를 밝히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선행연구

근세 전기에는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중심이 京都·大阪를 중심으로 발달하

2) 鈴木孝夫(1973)는 일본어의 인칭대명사를 ‘자칭사(自稱詞)’, ‘대칭사(對稱詞)’, ‘타칭사(他稱詞)’라고 명명하고, 이 세 개를 합쳐서 ‘인칭사(人稱詞)’라고 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1인칭대명사를 자칭대명사, 2인칭대명사를 대칭대명사라고 명명하기로 한다.(鈴木孝夫(1973) 『ことばと文化』, 岩波書店)

3) そなた를 근세 전기의 여러 대칭대명사 중 특히 こなた, わごりよ, そち와 비교분석하는 이유는 이들 대칭대명사가 そなた와 용법상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당시 다용되었던 대명사이었기 때문이다.

4) 근세 전기에 사용된 대칭대명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おまへ, おまへさま, こなたさま, こなさま, ごじぶんさま, きさま, おぬしさま, そもじさま, あなた, こなた, そなた, ごじぶん, 貴殿, 貴公, こなさん, おぬし, わごりよ, わがみ, おてまへ, 御身, そち, われ, おのれ, うぬ, なんじ)

였고, 후기에는 江戸를 중심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에, 언어 연구도 근세전기에는 京都·大阪의 중심으로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근세후기어는 江戸語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연구 대상이 되는 문헌자료도 전기에는 京都·大阪의 언어가 반영된 자료가 주를 이루고 후기에는 江戸語의 자료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기도 한다.

근세 전기의 대명사 연구로는 湯澤幸吉郎(1982)의 『徳川時代語の研究⁵⁾』, 坂梨隆三(1987)의 『江戸時代語の国語—上方語—⁶⁾』, 山崎久之(1963)의 『国語待遇表現体系の研究⁷⁾』 등이 있다. 특히 山崎久之(1963)의 『国語待遇表現体系の研究』는 근세 전기 자칭대명사와 대칭대명사를 총망라하여 그 용례를 제시하고 대명사를 대우도에 따라 체계화시켜 학술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한 근세 작품 별로 각각의 작품에 사용된 인칭대명사를 분석한 선행연구로 小島俊夫(1998) 『日本敬語史研究』가 있다. 小島俊夫는 인칭대명사와 경어와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虎明本狂言集』, 『古今集遠鏡』, 『洒落本』 등의 작품 속의 인칭대명사의 특징을 분석하였다⁸⁾. 아울러 湯澤幸吉郎(1959)는 『江戸言葉の研究⁹⁾』에서 인칭대명사의 종류별로 용례를 제시하며 각각의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는 화자의 성별이나 연령,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주목하여 그 쓰임을 설명하고 있다. 다만 湯澤幸吉郎(1959)는 근세 전기어보다는 근세후기어에 초점을 맞추어 예시를 들고 있어서, 근세후기의 인칭대명사 용법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근세 인칭대명사에 관한 연구는 상당부분 진전되어 있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의 연구를 바탕으로, 근세전기의 중심적인 어휘였던 ‘そなた’에 국한시켜 이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そなた’가 인칭대명사체계에서 갖는 위치를 거시적으로 보는 연구라기보다는 당시 ‘そなた’가 동시대의 다른 대칭대명사와 어떠한 용법상의 특징을 가지고 사용되었는가를 미시적으로 살펴보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기도 하다.

5) 湯澤幸吉郎(1982) 『徳川時代語の研究』 風間書房 pp.37-51.

6) 坂梨隆三(1987) 『江戸時代語の国語—上方語—』 pp.204-222.

7) 山崎久之(1963) 『国語待遇表現体系の研究』 pp.70-495.

8) 小島俊夫(1998) 『日本敬語史研究』 笠間書院 pp.8-181.

9) 湯澤幸吉郎(1959) 『江戸言葉の研究』 pp.85-104.

3. 연구 방법

분석 방법에 있어서는 근세전기 작품인 淨瑠璃의 회화문을 대상으로 하여, ‘そなた’와 유사한 사용상의 특징을 지닌 ‘こなた’, ‘わごりょ’, ‘そち’와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비교 분석의 순서 및 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연구 순서 및 내용

순번 \ 내용	연구 내용
연구1	‘そなた’와 ‘こなた’의 비교
연구2	‘そなた’와 ‘わごりょ’의 비교
연구3	‘そなた’와 ‘そち’의 비교
연구4	종합적 분석 및 정리

또한 아래의 <표 2>와 같이, ‘そなた’, ‘こなた’, ‘わごりょ’, ‘そち’가 각각 어떠한 문말표현과 공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각각의 대칭대명사를 사용하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어떠한가에 주목하여 그 공통점 및 상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분석 기준

순번 \ 기준	분석 기준
분석기준1	공기하는 문말표현의 유사성
분석기준2	화자와 청자의 관계

본 논문에서는 근세전기의 紀海音와 近松門左衛門의 淨瑠璃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そなた’는 근세 전기에는 다수 사용되었다가 근세 후기로 감에 따라 그 사용량이 급감한 대명사이다¹⁰⁾. 따라서 본고의 연구는 근세 전기 문

10) ‘そなた’가 근세후기에 사용량이 감소한 것에 대해 小島俊夫는 『日本敬語史研究』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そなた’는 16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까지의 虎明本狂言集의 경어체계나 近松世話淨瑠璃集의 경어체계에서 주요한 대칭대명사이다. 그러나 근세 후기 자료인 洒落本の 경어체계에서 ‘そなた’는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小島俊夫

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문헌자료의 선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한다.

- 1) 淨瑠璃는 근세 전기의 언어가 반영된 대표적인 문학작품이다.
- 2) 문학작품 속에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여 복잡한 인간관계나 사회상이 잘 반영되어 있어서 인칭대명사를 연구하기에 적합하다.
- 3) 文語的 색채가 열고 회화문의 고찰이 용이하기에 일상생활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인칭대명사 연구에 적합하다.

근세 前期 자료인 淨瑠璃는 『日本古典文学全集45¹¹⁾』에 수록되어 있는 紀海音의 「八百やお七」, 「腕久末松山」, 「袖の白しぼり」, 「傾城三渡笠」, 「ふたつ腹帯」와 『日本古典文学全集¹²⁾』에 수록되어 있는 近松門左衛門의 「曾根崎心中」, 「薩摩歌」, 「心中二枚絵草紙」, 「卯月の潤色」, 「ひぢりめん卯月の紅葉」, 「堀川波鼓」, 「五十年忌歌念仏」, 「心中重井筒」, 「心中万年草」, 「丹波与作待夜の小室節」, 「淀鯉出世滝徳」, 「心中刀は氷の朔日」, 「冥途の飛脚」, 「今宮の心中」, 「夕霧阿波鳴渡」, 「長町女腹切」, 「大経師昔暦」, 「生玉心中」, 「鑓の権三重帽子」, 「山崎与次兵衛寿の門松」, 「博多小女郎波枕」, 「心中天網島」, 「女殺油地獄」, 「心中宵庚申」을 사용하였다.

4. ‘そなた’와 ‘こなた’의 비교분석

‘そなた’와 ‘こなた’는 근세 전기를 대표하는 대칭대명사이다. 본장에서는 먼저 근세 전기의 ‘そなた’와 ‘こなた’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そなた’와 ‘こなた’가 공기하는 문말표현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각각의 인칭대명사가 공기하는 문말표현의 용례수 및 비율을 나타내면 아래 <표 3>과 <표 4>와 같다.

(1998) 『日本敬語史研究』 笠間書院版 p.55, p.104, p.207.)
 11) 横山正校注(1971) 『日本古典文学全集45 淨瑠璃集』小学館
 12) 森修·鳥越文蔵·長友千代治校注(1985) 『日本古典文学全集43 近松門左衛門集』小学館
 森修·鳥越文蔵·長友千代治校注(1985) 『日本古典文学全集44 近松門左衛門集』小学館

<표3> ‘そなた’와 공기하는 문말표현¹³⁾

文末表現	対称代名詞	そなた	
		用例数	比率
敬語+ます体		0	0%
通常語+ます体		0	0%
敬語+ぢや体		0	0%
通常語+ぢや体		270	95%
不明確		14	5%
総		284	100%

<표4> ‘こなた’와 공기하는 문말표현

文末表現	対称代名詞	こなた	
		用例数	比率
敬語+ます体		14	7%
通常語+ます体		45	22%
敬語+ぢや体		69	34%
通常語+ぢや体		53	26%
不明確		20	10%
総		201	100%

<표3>과 <표4>에서 알 수 있듯이, ‘そなた’와 ‘こなた’ 모두 「通常語+ぢや体」와 공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즉 ‘そなた’와 ‘こなた’는 「通常語+ぢや体」와 공기하면서 유사한 대우가치를 나타내는 용법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예1]은 ‘そなた’가 「通常語+ぢや体」와 공기하고 있는 사용례이며, [예2]는 ‘こなた’가 「通常語+ぢや体」와 공기하고 있는 사용례이다.

[예1] これなう、そなたももう十ぢや。 (「鑓の権三重帽子」, 321)

[예2] こなたのやうな長鳴が忌事ぢや。 (「鑓の権三重帽子」, 331)

13)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そなた’, ‘こなた’, ‘わごりょ’, ‘そち’와 공기하는 문말표현의 사용례수와 비율 통계는 『근세일본어 인칭대명사의 특징』에서 제시한 통계를 재인용한 것이다. (민승희(2007) 『근세일본어 인칭대명사의 특징』 시간의 물레) 이전의 조사에서는 통계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본고에서 ‘そなた’를 중심으로 유사대칭대명사의 용법에 대한 공통점과 상이점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표3>과 <표4>를 살펴보면, ‘そなた’와 ‘こなた’가 표현 가능한 대우가치의 범주에 있어 공기하는 문말표현의 상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そなた’는 「通常語+ぢや体」 이외의 다른 문말표현과는 공기하지 않는다. 즉 ‘そなた’는 「通常語+ぢや體」와의 공기만을 보이고 있지만, 반면 ‘こなた’는 「敬語+ます体」·「通常語+ます体」·「敬語+ぢや体」·「敬語+ぢや体」라는 4가지 문말표현과 모두 공기하고 있다. 아래의 [예3]은 ‘こなた’가 「通常語+ます体」와 공기하고 있는 예문이다.

[예3] 夜明けてこなたへ渡さうと、鉦下して留めました。 (「薩摩歌」, 111)
 < 下人 → 笹野三五兵衛(武士) >

이러한 문말표현과의 공기로부터 근세 전기에 ‘そなた’는 ‘こなた’가 표현할 수 있는 대우가치 중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こなた’가 표현가능한 대우가치의 범주는 넓었으며, 이에 비해 ‘そなた’가 표현가능한 대우가치의 범주는 좁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そなた’와 ‘こなた’가 사용되고 있는 예문의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そなた’와 ‘こなた’는 아래 예문과 같이 모두 대등한 관계¹⁴⁾의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용법을 공유한다. 아래 [예4]는 상인인 두 친구가 상대방을 ‘そなた’라고 부르고 있는 예이다. 또한 [예5]는 茶道의 지도자가 무사계급의 사람에게 대등한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예4] なにかそなたの商売ぞ。 (「冥途の飛脚」, 38)
 < 八右衛門(友、町人) → 忠兵衛(友、町人) >

[예5] こなたは腰をお引きなさるゝが、疝氣でも起こたか。
 (「鑓の権三重帽子」, 319)

14) 본고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화자가 청자보다 손윗사람인 경우, 화자와 청자가 대등한 경우, 화자가 청자보다 손아랫사람인 경우의 3단계로 분류한다. 손윗사람이나 손아랫사람의 기준은 신분제 사회였으므로 신분이 우선적으로 고려 기준이었으며, 다음으로 연령,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좀 더 세분화된 기준으로 분류하여 심도 있게 고찰하는 것은 차후의 과제로 하겠다.

< 岩木忠太兵衛(茶道の師) → 伴之丞(武士) >

그러나 <표4>에서 언급하였듯이, ‘こなた’는 「敬語+ます体」·「通常語+ます体」·「敬語+ぢや体」와도 공기하기에 당연히 ‘こなた’는 화자가 손윗사람인 청자에게도 사용되며, 이러한 사용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래의 [예 6]은 하녀가 이웃 집 가게주인에게 「くだされませ」라는 문말표현을 사용하면서 최대한 공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며, 이 대화에서 화자는 청자를 「こなた」라고 부르고 있다.

[예6] こなたの若い衆平兵衛殿、ちよつと呼び出してくだされませ。

(「心中刀は氷の朔日」, 548)

< 名前未詳の他家の下女 → 利右衛門(他家の町人) >

즉 손아래 사람인 화자가 손윗사람인 청자를 ‘こなた’라고는 칭하지만, ‘そなた’라고는 칭하지 않기에, 이 점에서 있어서 ‘そなた’와 ‘こなた’는 그 용법의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넷째, ‘そなた’와 ‘こなた’는 대등한 화자와 청자사이에서 사용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세히 예문을 살펴보면 대등한 관계의 사용에 있어서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예5]와 같이 무사나 다도의 스승과 같은 상층계급의 사람들이 대등하게 대화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こなた’라고 부르며, ‘そなた’라고는 부르지 않는다.

‘そなた’는 대등표현의 경우 모두 상인계급(町人) 또는 하인 등의 중·하층계급 사람들 사이에서의 사용례만 보이며, 상층계급의 사용례는 보이지 않는다¹⁵⁾. 아래의 [예7]은 친구사이인 상인이 상대방을 ‘そなた’라고 부르고 있는 장면이다.

[

예7] そなたへ渡る江戸銀がふらりと上るを、何かなしに、懐に押込んで、まんまと川を取止めしも、八右衛門という男を友達に持ちし故と、心のうちでは朝晩に、北に向ひて
挿むぞや。 (冥, 37)

15)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자료는 상인계층(町人)의 사람들의 등장인 암도적으로 많다. 본 논문의 자료상에서 상류계층의 사람들의 대화에서는 ‘そなた’가 사용되지 않고 ‘こなた’만 사용됨을 밝히며 향후 자료의 범위를 넓히어 객관적 데이터를 보강하도록 하겠다.

<忠兵衛(店の亭主の息子(友達)) → 八右衛門(友達)>

물론 아래의 [예8]와 같이, 대등표현이 아닌 경우는 상층계급의 화자가 하인에게 ‘そなた’를 사용하는 사용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예8] 頼むはそなたばかり。 (「大経師昔暦」, 215)
 <さん(奥様、大経師の妻) → 茂兵衛(手代) >

다만, 대등한 관계에서 상층계급의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을 부를 때에는 ‘そなた’라고 하지 않고 ‘こなた’라고만 하고 있다. 이로써 당시에 ‘そなた’보다는 ‘こなた’가 고상한 인상을 갖는 언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そなた’와 ‘わごりょ’의 비교분석

‘わごりょ’도 ‘そなた’와 용법상의 유사성을 띠는 대칭대명사이다. 본장에서 는 ‘そなた’와 ‘わごりょ’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논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そなた’와 ‘わごりょ’가 공기하는 문말표현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각각의 인칭대명사와 공기하는 문말표현의 용례 수 및 비율을 나타내면 아래의 <표5>와 <표6>과 같다¹⁶⁾.

<표5> ‘そなた’와 공기하는 문말표현

文末表現 \ 対称代名詞	そなた	
	用例数	比率
敬語+ます体	0	0%
通常語+ます体	0	0%
敬語+ぢや体	0	0%
通常語+ぢや体	270	95%
不明確	14	5%
總	284	100%

16) ‘そなた’와 공기하는 문말표현의 용례수 및 비율은 <표3>에서 제시하였지만, 본장에서 ‘わごりょ’와의 비교를 위하여 다시 한번 제시한다.

<표6> ‘わごりょ’와 공기하는 문말표현

文末表現 \ 対称代名詞	わごりょ	
	用例数	比率
敬語+ます体	0	0%
通常語+ます体	0	0%
敬語+ちや体	2	6%
通常語+ちや体	27	84%
不明確	3	9%
總	32	100%

‘そなた’와 ‘わごりょ’는 모두 「通常語+ちや体」와 공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앞서 ‘そなた’와 비교 고찰한 ‘こなた’는 공기하는 문말표현이 다양하여, ‘そなた’와 큰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わごりょ’는 <표6>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기하는 문말표현이 ‘そなた’와 거의 일치한다. ‘わごりょ’가 「敬語+ちや体」와 공기하는 예문이 있지만, 단 2개의 예문이 있을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そなた’와 동일하게 「通常語+ちや体」와 공기하여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즉 공기하는 문말표현으로는 ‘そなた’와 ‘わごりょ’의 차이점이 있다고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래의 ‘わごりょ’의 [예9]와 같이, ‘わごりょ’는 「通常語+ちや体」와 공기하면서 ‘そなた’와 유사한 대우가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예9] わごりょが好いたお山請出し、女房に持たせ、半年もたゝぬうち、所帯破つて、
親方の巾ひもならぬやうにはえせまい。 (「女殺油地獄」, 538)
< 徳兵衛 (繼夫) → 与兵衛 (息子) >

둘째, ‘そなた’와 ‘わごりょ’가 사용되고 있는 예문의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わごりょ’는 모두 대등 또는 손아래사람인 청자에게 사용된다는 점에서도 ‘そなた’와 동일한 용법을 공유한다. 대등한 관계에서의 ‘そなた’의 예는 앞서 언급한 [예7]과 같으며, 아래의 [예10]은 ‘わごりょ’가 대등한 관계에서 쓰인 사용례이다.

- [예] これ親仁、まつわごりょは誰なれば、よい年をして京の町の作法知らぬか。
(「博多小女郎波枕」, 440)

< 熹右衛門 → 惣左衛門 >

앞에서 언급한 ‘そなた’와 ‘こなた’도 대등한 관계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하였으나, ‘こなた’는 ‘そなた’와는 달리 손윗사람에게도 사용되어 용법상의 차별성을 확실히 하고 있었다. 그러나 ‘そなた’와 ‘わごりよ’는 모두 대등한 관계나 손아랫사람에게 사용되어 이 점에 있어서도 공통되는 용법을 지니고 있다.

셋째, ‘そなた’와 ‘わごりよ’ 모두 대등 또는 손아랫사람에게 사용되고 있지만, 확실한 대비를 이루는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淨瑠璃에서 대등한 관계인 화자와 청자는 압도적으로 ‘そなた’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そなた’는 淨瑠璃의 대칭대명사 중 용례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용례수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そなた’는 284개, ‘わごりよ’는 32개의 사용례가 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차이점은 ‘そなた’와 ‘わごりよ’ 모두 대등 또는 손아랫사람에게 사용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대등 또는 손아랫사람을 지칭할 경우, 일반적으로 ‘そなた’를 사용하였고 특별한 경우에만 ‘わごりよ’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そなた’와 ‘わごりよ’는 대우도는 유사하였지만, ‘わごりよ’의 사용범위는 좁고, ‘そなた’의 사용범위는 넓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이와 같이 사용 빈도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そなた’와 ‘わごりよ’의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わごりよ’는 친근감을 갖는 친밀한 사이에서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わごりよ’는 대등 또는 손아랫사람에게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에게만 사용하였기에 그 사용량도 ‘そなた’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わごりよ’의 아래의 [예11]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사용하는 것과 같이, 화자와 청자는 매우 친밀한 관계이다.

[예11] わごりよたち、もしものがあつたりとも、いかな九文きなかでも、堪忍ばし召さるな。

(「五十年忌歌念仏」279)

< 左治右衛門(父) → 娘 >

‘わごりよ’의 이러한 특징은 「日本國語大辭典」17)에서의 ‘親しみをもって用いる語’라고 하는 지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7) 日本大辭典刊行会(1981)「日本國語大辭典」小学館 p.1346.

6. ‘そなた’와 ‘そち’의 비교분석

‘そち’도 ‘そなた’와 용법상의 유사성을 띄는 대칭대명사이다. 본장에서는 ‘そなた’와 ‘そち’의 공통점 및 상이점에 대해서 논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そなた’와 ‘そち’가 공기하는 문말표현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각각의 인칭대명사와 공기하는 문말표현의 용례수 및 비율을 나타내면 아래의 <표7>과 <표8>과 같다¹⁸⁾.

<표7> ‘そなた’와 공기하는 문말표현

文末表現 \ 対称代名詞	そなた	
	用例数	比率
敬語+ます体	0	0%
通常語+ます体	0	0%
敬語+ちや体	0	0%
通常語+ちや体	270	95%
不明確	14	5%
總	284	100%

<표8> ‘そち’와 공기하는 문말표현

文末表現 \ 対称代名詞	そち	
	用例数	比率
敬語+ます体	0	0%
通常語+ます体	0	0%
敬語+ちや体	0	0%
通常語+ちや体	90	84%
不明確	17	16%
總	107	100%

위의 <표7>과 <표8>에서 알 수 있듯이, ‘そなた’와 ‘そち’는 모두 예외 없이 「通常語+ちや体」와 공기한다는 공통점을 공유한다. 그리고 이로써 ‘そなた’와 ‘そち’가 공통적으로 대우가치가 높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예12]

18) ‘そなた’와 공기하는 문말표현의 용례수 및 비율은 <표3>에서 제시하였지만, 본장에서 ‘わごりょ’와의 비교를 위하여 다시 한번 제시한다.

는 ‘そち’가 「通常語+ちや体」와 공기하고 있는 예이다.

[예12] そちが五ツの時よりもはたとせ余りおやといひ、子となじみたらる其中に、何のへだて
が有ものぞ。 (「傾城三渡笠」, 156)
< 義母 → 忠兵衛(息子) >

둘째, ‘そなた’와 ‘そち’가 사용되고 있는 예문의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살펴 보겠다. ‘そなた’는 앞서 언급한 [예7]과 같이 대등한 관계에서도 사용되었으며, 또한 [예8]와 같이 손아랫사람에게도 사용되었다. [예13]은 안주인이 부리는 일꾼을 ‘そなた’라고 부르고 있는 장면이다.

[예13] そなたもまだ寝やらぬの。 (「大経師昔暦」, 220)
< おさん(奥様、大経師の妻) → 茂兵衛(手代) >

‘そち’는 대등한 관계에서 사용된 예가 없고 모두 손아랫사람에게만 사용되고 있다. 아래의 [예14]는 무사가 청자인 상인을 자신보다 하위계층의 사람이라고 여기며 ‘そち’라고 칭하고 있는 장면이다.

[예14] 武士はもとより町人のそちとらまで、この恩を忘るゝな。
(「心中宵庚申」, 581)
< 郷左衛門(武士) → 半兵衛(町人) >

이로써 ‘そなた’와 ‘そち’는 대등관계에서 사용 가능한가 아닌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확연히 사용상의 차이를 보인다.

셋째, ‘そなた’와 ‘そち’의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そなた’가 손아래의 청자에게 사용된 경우를 분석해 보면,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同계층간의 상하관계의 경우와 異계층간의 상하관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同계층간의 상하관계라 함은 예를 들면, [예15]와 같이 상인(町人) 이라는 상인계급 내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そなた’를 사용하는 경우나, 부모가 아들에게 ‘そなた’를 사용하여 부르는 경우를 말한다.

[예 15] そなた故に邪見者と言はせては、女夫の者が後生も悪い。

(「心中宵庚申」, 613)

< 半兵衛 (夫、町人) → ちよ (妻、町人) >

그리고 異계층간의 상하관계라고 함은, 무사가 상인계층의 청자에게 말하는 경우, 또는 유곽의 주인이 하인에게 말하는 경우와 같이 그 상하관계가 다른 계층, 다른 신분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세는 당시 신분사회였기에 다른 신분에 속하는 사람을 대하는 언어와 동일 신분 계층의 사람을 대하는 언어는 경의도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더불어 인칭대명사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데, 특히 ‘そなた’와 ‘そち’에서 이러한 면을 엿볼 수 있다. 즉 異계층의 아랫사람이 청자일 경우, 화자는 ‘そち’를 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そち’의 이러한 쓰임에 대하여 민승희(2010)¹⁹⁾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そち」は異階層間(上位階層→下位階層)の目下に対しての最下位待遇表現としてもっとも多く使われた。

‘そなた’와 ‘そち’의 화자와 청자의 주종관계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9> ‘そなた’와 ‘そち’의 同계층간, 異계층간 사용비율²⁰⁾

代名詞 \ 關係	同계층간 使用		異계층간 使用		計	
	用例数	比率	用例数	比率	用例数	比率
そなた	160	88%	22	12%	182	100%
そち	34	32%	73	68%	107	100%

<표9>에서 알 수 있듯이, ‘そなた’는 同계층의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는 비율(88%)이 異계층의 상대방에게 사용하는 비율(12%)보다 높았다. 이와는 반대로 ‘そち’는 異계층의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는 비율(68%)이 높아 ‘そなた’와 대조를 이룬다.

19) 민승희(2010) 「罵」表現 『日本文化研究』 33, 동아시아일본학회 p167.

20) <표7>은 ‘そなた’가 대등관계에서 사용된 예는 포함하지 않는다. 즉 ‘そなた’와 ‘そち’가 同계층간 혹은 異계층간의 아랫사람에게 사용된 경우만을 포함하는 수치이다. 따라서 ‘そなた’의 경우, 총284예 중에서 대등관계에서 사용된 102예를 제외한 182예만 수치에 포함하여 ‘そち’와 비교하였다.

7. ‘そなた’와 그 주변어에 대한 종합적 비교

‘そなた’를 중심으로 ‘こなた’, ‘わごりよ’, ‘そち’를 비교해 본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そなた’와 ‘こなた’의 공통점과 상이점은 <표10>, <표11>와 같다.

<표10> ‘そなた’와 ‘こなた’의 공통점

공통점	
1	「通常語+ちや体」와 공기함
2	대등한 관계에서 사용함

<표11> ‘そなた’와 ‘こなた’의 상이점

상이점			
1	「敬語+ます体」·「敬語+ちや体」· 「通常語+ます体」와의 공기 여부	そなた	×
		こなた	○
2	손윗사람인 청자에게 사용 여부	そなた	×
		こなた	○
3	상층계층에서의 대등표현 사용 여부	そなた	×
		こなた	○

두 번째로, ‘そなた’와 ‘わごりよ’의 공통점과 상이점은 <표12>, <표13>과 같다.

<표12> ‘そなた’와 ‘わごりよ’의 공통점

공통점	
1	「通常語+ちや体」와 공기함
2	대등 또는 손아랫사람에서 사용함

<표13> ‘そなた’와 ‘わごりよ’의 상이점

상이점			
1	용례수의 현저한 차이	そなた	多
		わごりよ	少
2	사용범위가 일반적 또는 제한적인지의 차이	そなた	일반적
		わごりよ	제한적

세 번째로 ‘そなた’와 ‘そち’의 공통점과 상이점은 <표14>, <표15>과 같다.

<표14> ‘そなた’와 ‘そち’의 공통점

공통점	
1	「通常語+ちや体」와 공기함
2	손아랫 사람에게 사용함

<표15> ‘そなた’와 ‘そち’의 상이점

상이점			
1	대등한 관계에서의 사용 여부	そなた	○
		そち	×
2	異계층간의 사용빈도	そなた	低
		そち	高

아래의 <표16>은 ‘そなた’, ‘こなた’, ‘わごりよ’, ‘そち’를 총망라하여 본고의 비교 기준으로 하여 유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표16> ‘そなた’ ‘こなた’ ‘わごりよ’ ‘そち’의 유사성

용법	대명사	そなた	こなた	わごりよ	そち
	通用語+ちや体와의 공기여부	○	○	○	○
대등한 관계에서의 사용여부	○	○	○	×	
손아래 청자에게 사용여부	○	×	○	○	
異계층의 아랫사람에게 사용여부	○	×	×	○	

8. 나오기

본고에서는 ‘そなた’를 중심으로 하여, ‘そなた’와 사용상의 유사성을 띠는 대칭대명사 ‘こなた’, ‘わごりよ’, ‘そち’와의 비교분석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문말표현과의 공기관계를 보면, 「通用語+ちや体」와 공기가능하다는 점에서 ‘そなた’, ‘こなた’, ‘わごりよ’, ‘そち’는 모두 동일하다.

둘째,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일 경우, ‘そなた’, ‘こなた’, ‘わごりよ’의 사용례를 모두 찾아볼 수 있지만, ‘そち’의 사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또

한 이 경우, 상층계층의 사람들끼리의 대등한 대화에서는 ‘こなた’를 사용하며, 상인계층 등 그다지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은 계층의 사람이 대등하게 대화할 경우 ‘そなた’를 사용하고 있었다.

셋째, 화자가 손윗사람이고 청자가 손아래사람일 경우, ‘そなた’, ‘わごりょ’, ‘そち’의 사용례를 모두 찾아볼 수 있지만, ‘こなた’의 사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넷째, 화자가 손윗사람이고 청자가 손아래사람이면서 이들의 관계가異계층간의 관계일 경우, ‘そなた’보다는 ‘そち’의 사용비율이 높다.

향후, ‘おぬし’, ‘おまへ’, ‘わがみ’ 등 좀 더 비교의 대상을 넓혀 분석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비교의 기준도 성별이나 연령 등을 좀 더 세분하여 분석한다면 근세전기 대칭대명사의 체계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편】

横山正校注(1971) 『日本古典文学全集45 浄瑠璃集』小学館
森修·鳥越文蔵·長友千代治校注(1985) 『日本古典文学全集43 近松門左衛門集』小学館
森修·鳥越文蔵·長友千代治校注(1985) 『日本古典文学全集44 近松門左衛門集』小学館

【참고문헌】

민승희(2007) 『近世日本語 人称代名詞の特徴』 시간의 물레, p. 111, p.114, p.119.
_____(2008) 「近世前期の自称代名詞 ‘わたくし’, ‘わたし’, ‘わし’についての一考察」 『日本文化研究』 25, 동아시아일본학회 p.52.
_____(2010) 「罵り表現」 『日本文化研究』 33, 동아시아일본학회 p167.
小島俊夫(1998) 『日本敬語史研究』 笠間書院版 pp.8-181, p.207.
坂梨隆三(1987) 『江戸時代語の国語一上方語一』 東京堂出版 pp.204-221.
日本大辞典刊行会(1981) 「日本国語大辞典」小学館 p.1346.
山崎久之(1963) 『国語待遇表現体系の研究』 武蔵野書院 pp.70-495.
湯沢幸吉郎(1982) 『徳川時代語の研究』 風間書房 pp.37-51.
_____(1959) 『江戸言葉の研究』 pp.85-104.

논문 투고 일자 : 2019. 05. 17.
논문 심사 일자 : 2019. 08. 02.
게재 확정 일자 : 2019. 08. 05.

 <要旨>

近世前期の‘そなた’とその周辺語についての考察

閔丞希

‘そなた’を中心として、‘そなた’と使用上の類似性をもつ対称代名詞‘こなた’、‘わごりよ’、‘そち’を取り上げ、それらを比較分析して下のような結論が得られる。

まず、‘そなた’、‘こなた’、‘わごりよ’、‘そち’はすべて文末表現「通用語+ちや体」と呼応可能な対称代名詞であって、その点において四つの代名詞が共通している。

次に話し手と聞き手の関係が対等な関係である場合、話し手の‘そなた’、‘こなた’、‘わごりよ’の使用例は見つけられるが、‘そち’の使用例は見当たらない。ただ、武士など上層階層の人々が対等に話す時は聞き手を「こなた」と称し、町人などそれほど高くない階層の人々が対等に話す時は聞き手を「そなた」と称する傾向があった。

なお、話し手が目上の人で聞き手が目下の人である場合、話し手の‘そなた’、‘わごりよ’、‘そち’の使用例は見つけられるが、‘こなた’の使用例は見当たらない。

最後に、話し手が目上の人で聞き手が目下の人でありながら、話し手と聞き手の関係が異階層間の関係である場合、‘そなた’より‘そち’を使用する傾向があった。

A study on Sonata and its surrounding language

Min, Seung-Hee

This study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words *sonata*, *konata*, *wagoryo*, and *soti*; four distinct results were revealed.

First, the words *sonata*, *konata*, *wagoryo* and *soti* correspond to the disrespect phrase .

Second, if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are of equal status, we can find examples in which *sonata*, *konata*, and *wagoryo* are used but *soti* is not.

In this case, *konata* was used in equal dialogue among people of the upper class, and *sonata* was used among people of upper class, such as merchants. In addition, the use of *wagoryo* indicates intimacy between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Third, if the speaker is considered to be superior to the listener, we can find usage of *sonata*, *wagoryo*, and *soti*, but no use of *konata*.

Fourth, if the speaker is considered to be superior to the listener and their relationship is one between different classes, we can find usage of both *soti* and *sonata*. In this case, *soti* is used with a higher frequency than *sonata*.